

매출 1조원 초일류기업 도약

포장 관련사업 강화

한국 화섬업계를 선도해 나간다는 의지로 1972년에 설립된 제일합섬은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과 신규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제화시대를 맞아 섬유업계가 지향해야할 변신방향을 뚜렷이 제시해오고 있다.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폴리에스터 칩(Polyester Chip),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화이버(Polyester Staple Fiber), 폴리에스터 필라멘트(Polyester Filament) 등 섬유원료는 물론 화섬직물, 면직물, 장섬유 직물 등을 다양하게 생산하면서 각 직물군마다 개성에 맞춘 신흥섬 소재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폴리에스터 종합기술을 바탕으로 오디오, 비디오용, 8mm용 등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베이스 필름(Polyester Base Film)과 전기·전자용, 그래픽용, 점착용, 산업용 등 고기능성이 요구되는 기능성 필름도 공급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이미 지난 88년부터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 방적플랜트,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플랜트 등을 인도, 인도네시아 등지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인도네시아에 직포 및 필라멘트 직물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한국 화섬업계가 나아갈

길을 닦아가고 있다.

기술력의 우위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섬유, 비섬유부문에서 기능부여와 고부가가치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제일합섬은 고객만족 추구의 정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위주 생산과 판매현장 중심의 경영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제일합섬은 창사 이래 최대규모인 총 5천억원을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구미 2공장 건설을 94년 시작하여 95년 1단계 건설을 완료하였고 2단계 건설이 현재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천년대를 대비한 구미2공장은 생산규모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생산라인별 제품의 전문화를 통해 품질과 사업구조면에서도 최고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다.

구미 2공장 건설이 완료되는 97년에는 '제일합섬 매출 1조원' 시대를 열고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의 발판을 구축할 것이다.

화섬업계에게는 1995년이, 특히 하반기는 어려운 시기였다. 무엇보다도 주원료인 TPA(고순도 텔레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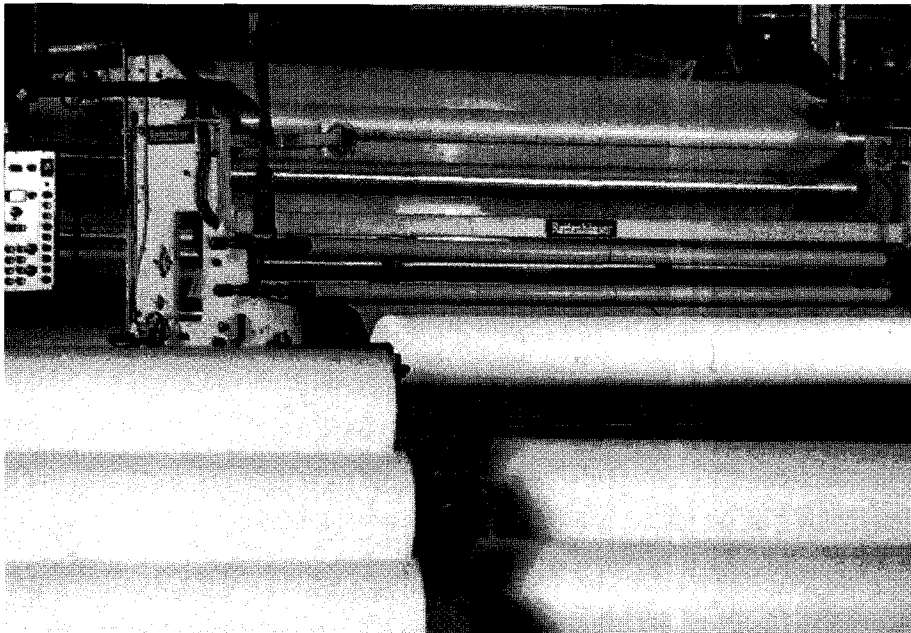
이프 산) 등의 원료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채산성이 극히 악화되었으며 또한 섬유산업의 전반적인 부진과 중국정치의 불안정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전반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다.

하지만, 제일합섬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당초 목표했던 매출목표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94년에 시작한 구미 제2공장의 1단계 건설과 경산공장의 장섬유 염가공 공장 등의 건설을 계획한대로 완료하고 사업다각화와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이룩한 의미있는 해였다.

제일합섬이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 중에서 특히 포장산업과 관련한 부문은 베이스 필름의 산업용도와 폴리에스터 스펀본드 장섬유 부직포이다.

기타 부분도 따져보면 간접적이거나 포장산업과 연결되었지만,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분야는 위의 두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베이스 필름 부문을 살펴보면, 1995년의 경우 일반화섬은 무척이나 어려운 해였지만 베이스필름의 경우 지난 몇년간의 전세계적인 수급 불균형, 즉 공급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관계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린 시기였다.



◀ 제일합섬이 1회용품에서 의류용·농업용 등의 용도로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스펀본드의 일괄생산시스템

제일합섬은 이런 공급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에서도 언급한 구미 제2공장에 베이스 필름 라인을 증설하였다.

이번 증설로 제일합섬은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고 라인의 전문화를 통해 보다 안정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됐다.

또한 글로벌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지 판매법인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연말 미국 현지에 설립한 미국 현지 판매법인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현지 공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만간 미국외에도 세계 각 주요 포스트에 판매법인을 계속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영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인 베이스필름 메이커로 성장할 계획이다.

포장산업과 관련한 제일합섬의 산업용 베이스 필름의 경우 지난해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산업용도 전

체로 볼때 94년에 비해 70% 이상의 괄목한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베이스필름의 경우 산업용도가 60만톤으로 20여만톤의 마그네틱용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용도개발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오히려 마그네틱 시장이 산업용에 비해 3배정도의 큰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기록매체 변화와 생활수준, 방식의 선진국화로 향후에는 산업용도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용 중 포장(Packaging)용도는 전세계 수요중 35%, 국내의 경우 6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용도로 제일합섬의 경우에도 중점적으로 용도개발 및 시장개척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다.

제일합섬의 포장용 베이스 필름은 포장인쇄용, PVDC 코팅용, 증착용, Lamination 용 등의 용도에 주

로 적용된다.

또한 국내에서 비디오용 베이스 필름을 최초로 자체 개발하였던 제일합섬연구소는 그러한 우수한 개발력과 그동안 축적된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용도의 베이스 필름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폴리에스터 스펀본드(Polyester Spunbond) 장섬유부직포는 95년 9월에 첫 출시한 제품으로 현재 시장에 도입되어 우수한 품질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제일합섬은 90년 폴리프로필렌(PP) 스펀본드 장섬유부직포를 생산한 이래 기존의 폴리에스터 방사 기술과 PP 스펀본드 부직포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연산 3천톤 규모의 폴리에스터 스펀본드 부직포 라인을 구미 제2공장에 건설하고 9월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PET SPUNBOND는 전선, 자동차, 토목, 생활자재 등 거의 사용



◀ 제일합섬이 생산하고 있는 PET 필름을 사용한 식품 포장지

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토목용 다음으로 포장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폴리에스터 특유의 인패성과 부직포 특유의 종이, 천 대체효과로 인해 꽃포장에서 의료보관용커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장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제일합섬의 PET SPUN-BOND 부직포는 최신 공법으로 제조되어 부직포 품질의 바로미터인 균일도가 뛰어나고 인장강도 등 물리적 강도도 뛰어나다.

폴리에스터 스펀본드 부직포의 생산으로 제일합섬은 국내에서 최대 장섬유 부직포 메이커로 부상했다. 향후에 제일합섬은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공법을 갖춘 종합 부직포 메이커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5년은 여러 가지 국내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제일합섬은 목표한 매출과 활발한 투자를 이룩하고 글로벌 경영의 단초를 확보한 중요한 해였다.

올해에도 화섬업계 및 섬유산업의 경기전망은 그다지 좋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한 원료의 수급불균형이 계속 될 전망이며 중국 등 경쟁국들의 화학, 섬유분야에의 투자 집중으로 국제적인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95년 상반기의 엔고와 달러엔의 안정화 속에 오히려 원고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악재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

이와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력 우위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될 것이다.

제일합섬은 96년에도 계속되는 구미 제2공장 건설을 통해 설비의 대형화, 전자동화를 구축하여 생산규모의 경쟁력, 원가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다.

베이스 필름분야에서 산업용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한해가 될 것이며, 부직포도 본격적인 시장전개를 통해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제품개발로 포장산업계에 일조하는 1996년이 될 것이다.

비록 어려운 시장 여건이 예상되는 1996년이지만 제일합섬은 부단한 연구개발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21세기 초일류기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K]